

第256回國會  
(定期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7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0月5日(水)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한글날 국경일 지정촉구 결의문**

제안연월일 : 2005. 10. 5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회장

주 문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민족문화사의 획기적인 위업이고, 한글에 담겨 있는 자주정신, 창조정신, 위민정신, 진취정신은 우리민족이 숭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 왔다. 더구나 한글은 지구상의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성·체계성이 탁월하여 정보화에 적합하며, UNESCO가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훈민정음을 유일하게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1949년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82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90년에 공휴일을 정비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경제 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한글창제일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와 한글이 민족의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 위업을 선양하고,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우며, 한글의 우수한 과학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인 한글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제안이유

한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여 개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 창제일자, 창제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知的) 성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로서 국가경쟁력의 속도를 좌우하는 정보화 친화도에 있어 가장 우수한 문자로 알려져 있으며, UNESCO에서도 지구상의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훈민정음을 유일하게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글창제일이 문화국가로서 독립성·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 경축일이라는 점은 현재 지정된 국경일에 비하여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교육 열기를 활용하여 한류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